

학점포기제, 2학기부터 완전 폐지

교육부 ‘대학 학점세탁’ 개선 요구에 대학 본부 폐지 결정

갑작스런 제도 폐지에 학생들 혼란… 한학기 유예기간

학점포기제가 오는 2학기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대학 본부는 “학점포기제로 인해 우리대학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낮아져 대학 위상 하락 등 여러 폐단이 있었다”면서 학점포기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학점포기제 폐지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점포기제가 ‘학점세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각 대학에 폐지를 권고했다.

특히 대학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학이 성적증명서를 원래의 성적과 다르게 이중 발급하고 있다”며 학점포기제를 성적 부풀리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요구가 있어 왔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에 학점포기제를 3월부터 반드시 개선할 것을 권고, 사실상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조치 명령 및 행정·재정적인 제재를 내리겠다는 등의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올며려자먹기’ 식으로 정

부 입장을 수용했다. 이채일(학사과) 수업팀장은 “학점포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학교가 인원감축 등 재정적 제재를 받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회장 고광표)는 이에 대해 13학번까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14학번부터 폐지안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국 학사과와 총학생회가 대화를 통해 학점포기제를 한학기 유예하고 이후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결정됐다. 이 제도를 3월부터 바로 폐지할 경우 학생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재이수 기회가 없는 4학번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고 재학생들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다.

학점포기제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한 학생은 “학생들이 실제 강의방식과 다른 강의계획서를 보고 잘못 판단해 수업을 듣게 돼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수업을 택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취업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폐지

에 찬성하는 학생은 “학점포기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재수강과 수강포기라는 제도가 있다”며 “학점포기제가 폐지돼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학점포기제 폐지에 학생들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한 학생은 “미리 공지도 없이 이런 갑작스런 통보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처사”라며 “폐지를 갑자기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선 학점포기제 폐지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대학본부가 학점포기제 폐지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학 홈페이지 등 열린 공간에 이 같은 정보를 게시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총학생회에만 이같은 방안을 알리고 일반 학생들은 전혀 이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경상대학의 한 학생은 “정부에서 내린 방침은 알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방안을 대학본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총학생회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점포기제 폐지는 서울 주요 대학은 물론 강원대, 충북대 등이 올해 1학기에 학점포기제가 폐지됐다. 또 전북대는 우리대학과 같이 한학기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졸업생 취업률 60% 끌어올리겠다”

7일 제9대 허향진 총장 취임

1인당 장학금 300만원까지 증액

기자회견서 10대 핵심과제 제시

허향진 총장이 지난 7일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 행사는 오전 11시 아라무즈홀에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우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기관 단체장과 고충석 전 총장, 미국 괌 대학 로버트 언더우드 총장 등 교류대학 관계자, 대학후원 기관 및 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허철구 교무처장의 내빈 소개와 총장 취임사, 축사,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향진 총장은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직원들과 함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열창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허 총장의 대학 비전을 보여줬다.

학교 역사상 최초로 총장직을 연임한 허향진 총장은 “대학을 둘러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열정을 바친 제8대 총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대학교의 빛나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또 “특성화 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로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하다”면서 “우리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정이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이와 함께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립대 최상위권으로 만들겠다”면서 “1인당 장학금 또한 300만원까지 증액하여 학생들이



7일 총장 취임식에서 허향진 총장과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원하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합창하고 있다.

학업에 정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주대학교를 향한 발걸음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우수’ 인증을 받은 만큼, 1000여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국제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허향진 총장은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과 연계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것이며 150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 조성과 750억원 이상의 학술연구비 및 국책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총장 취임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허향진 총장은 정부의 대학교조 개혁사업과 특성화 사업 등 대학의 전장적인 대응 방안을 밝혔다.

허 총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원칙과 신뢰에 근거한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달할 것”이라며 “아시아의 명문·세계의 중심 JNU (Jump, New, Unity)의 비전을 실현하

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또한 “소통과 참여, 분산과 자율, 원칙과 신뢰,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JNU 프로젝트를 구현할 것”이라며 “JNU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각 부문별 총 12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총장은 123개의 실천과제 중 10개 과제를 선별해 10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학술진흥연구비 단계적 증액 △‘7+1(한 학기 해외수학)’ 프로그램 운영 △취업률 국립대 최상위권 달성 △학술연구비·국책사업비 2500억원 시대 달성 △608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해외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대 조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과 연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교직원 처우 개선 발전기금 조성 △교육대학 아라캠퍼스로 이전 기반 조성 △아시아태평양 섬 거점대학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이다.

강수빈·박소연 기자 관련기사 4면

고충석 전 총장, 청조근정훈장 받아

국민교육발전 헌신 공로 인정

학술업적으로 공로패도 수여

고충석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5일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청조근정훈장은 국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1등급 근정훈장이다.

고충석 전 총장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제7대 제주대 총장으로 재임했다. 고 전 총장은 임기 중 발전기금 300억 유치, 교육대학과의 통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제주대학교병원 이전, 기초과학연구원과 아열대연구소사업연구소 유치

등의 대내외적 성과를 거뒀다.

고 전 총장은 또 행정학 분야의 학술 업적을 인정받아 총장 공로패도 수상했다.

한편 고충석 전 총장은 1979년 11월 행정학교 교수 임용 후 법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한국국경관리학회 부회장, 제주경찰청 공동대표,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평화의 섬 추진위원장, 제주지역혁신연구회장, 한라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자원봉사사협의회장과 이여도 연구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소연 기자



박물관 ‘캠퍼스 컬처데이’

3월부터 두 달간 매주 수요일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대학 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대학 구성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물관(관장 허남춘)은 3월부터 두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박물관 캠퍼스 컬처 데이(Campus-Culture Day)’ 프로그램의 하나로 박물관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카페를 연다. 카페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카페에서 커피와 녹차 등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지는 제주의民俗文化를 공부하는 시간도 갖는다. 박물관 학예사의 해설을 들으며 ‘제주의 땅’과 ‘제주의 바다’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또 방문객들은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통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부찬우 기자

국제 교류수학생 14일까지 지원 마감

13개국 46개 대학 총 143명 선발… 대상자 확정은 17일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는 오는 14일까지 2학기 교류수학생과 복수학위생 지원 신청을 마감한다.

학생들은 일본 고베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 교육대학 등 13개국 4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선발 인원은 총 143명이다.

선발 방법은 각 대학이 요구하는 공인성

적순으로 선발한다. 지원인원이 초과한 경우 영어성적 소지자, 학업성적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또 필요시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번달 14일 마감하며 대상자 확정은 17일이다.

교류수학생 지원자격은 △제주대학교 학생으로 신청 시점에 1개 학기 이상 수학한

자(휴학생 신청 가능) △교류수학생 수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을 제주대학교에서 이수할 예정인 자 △이수한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학생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 또는 제주대학교 추천기준을 갖춘 자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4급 이상 취득자 등이다.

한편 복수학위생은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과 천진제경대학 각 5명씩을 선발한다.

문의=국제교류본부(전화 754-2198)

강수빈 기자

2014학년도 2학기 파견 국제 교류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 안내

1. 교류수학생 지원자격

가. 제주대학교 학생으로 신청 시점에 1개 학기 이상 수학한 자(휴학생 신청 가능)
나. 교류수학생 수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을 제주대학교에서 이수할 예정인 자
다. 이수한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학생(대학원생은 3.0 이상)
라.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 또는 제주대학교 추천기준을 갖춘 자
마.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4급 이상 취득자
바. 대학별 선발인원, 학비납부 및 대학별 지원 자격(교류수학생)

국가	대 학 명	선발인원	학비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일본	고베대학	2	제주대 납부	해양공학대학 2학기 수료한 학생, 평균평점 3.25 이상, JLPT N2
	나가사키대학	1	"	JLPT N2
	가고시마대학	3	"	JLPT N2, 자연계수업 수강시 TOEIC 680이상
	동경학예대학	2	"	JLPT N2
	메이조대학	3	"	"
	메이오대학	1	"	JLPT N2, 2학년이상 파견 가능 수학기간 1년
	아마가타대학	2	"	JLPT N2
	마쓰모토대학	2	"	JLPT N2(수학하는 곳은 마쓰쇼슈니카컬리지)
	오사카경제대	2	"	1년, JLPT N2, 경성대 학생만 수학기간 1년, 기숙사비 면제
	오사카시립대학	1	"	JLPT N2
중국	영남대학	1	"	IBT79, IELTS 6.0 수학기간 6개월, 기숙사비 면제, 4학년 1학기까지 파견가능
대만	국립청광대학	2	"	HSK 5급 이상, IBT 70이상
	국립중앙대학	2	"	"
중국	동북대학	2	"	학부수업 수강시 HSK 5급 이상
	삼협대학	2	"	"
	상담대학	3	"	HSK 3급(240)이상
	하북대학	3	"	"
	천진재경대학	5	"	경성대 학생만 지원가능
	동원정보대학	2	"	컴퓨터공학과 HSK 4급, 경영학과 HSK 6급 이상 수학기간 1년, HSK 6급이상 전공과목 수강 가능
	연변대학	2	"	HSK 3급(240)이상
	천진외국어대학	1	제주대 납부	"
	하얼빈외공대학	2	"	"
	호남사범대학	3	"	학부수업 수강시 HSK 5급 이상
	산둥대학 (위해캠퍼스)	1	"	"
	대련 민족대학	5	"	파견시점 2학년 이상
	목단강사범대	2	"	2014학년도 가을학기 파견학생에 한해 HSK 우수자 1명 장학생으로 추천할 예정
	해남대	2	"	학부수업 수강시 HSK 4급 이상
	강안대	2	"	"
	무한대	5	"	"
	언론홍보대	3	"	"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11	"	인문대(1명), 경제, 법학(각 5명) 학부 수업시 IBT 79, IELTS 6.0 이상

국가	대 학 명	선발인원	학비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2	제주대 납부	생명공학, 전자공학, 식품공학, 경영학과 학부 수업시 IBT 79 (각 과목당 19점 이상)
	외국어정보대	2	"	IELTS 4.5
독일	프라이부르크교육대학	2	"	- 독일학과 전공학생 1명(필수) - 비독일어 전공 학생중 학기당 독일어 과목을 6학점 이상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1명 (해당자가 없을 경우 독일학과 전공학생 추가 선발) ※ 독일어 면접 실시 및 합격자 선발은 독일학과에서 진행함.
	러시아	2	"	러시아어 중급 이상
미국	태평양국립대학	2	"	IBT 61, IELTS 5.5
	네브래스카대학	10	양교납부	공인영어성적 미소지자 가능
	델라웨어주립대학	10	양교납부	IBT 79, IELTS 5.5, 수학기간 6개월
	안젤로주립대	1	"	IBT 79, IELTS 6.5
	일리노이공과대	5	양교납부	IBT 80, IELTS 6.5, 약\$17,000/학기(수업료, 기숙사비)
스페인	알리칸테대학	2	"	DELE B1 또는 스페인어 가능자 스페인어 성적 미소지자인 경우 공인영어성적 우수자 순
프랑스	라로셸대	3	"	관광경영(3학년)학생만 지원가능, IBT 70
호주	선샤인코스트대	1	"	교환프로그램 IBT 76(쓰기 점수 18점 이상), IELTS 6.0(각 과목별 5.5 이상)
	5	"	Study Abroad 프로그램 IBT 76(쓰기 점수 18점 이상), IELTS 6.0(각 과목별 5.5 이상) 수학기간 6개월 약\$12,000/학기(수업료, 기숙사비)	
		"	"	"
몽골	몽골국립대학	2	제주대 납부	TOEIC 800이상
	몽골국계대학	2	"	TOEIC 800이상
멕시코	하와이대	8	"	DELE B1 또는 스페인어 중급 이상
계		143		

※ 수학기간이 표시가 안된 학교는 6개월 혹은 1년 선택 가능 ※ 공인성적 표기가 없는 학교는 공인성적 없이 지원가능
- 일부 대학의 경우 해당 언어 공인성적 제출을 의무화 하고 영어 시험 공인성적은 소지자에 한해 제출 (단, 예외로대는 언어 공인성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
- 중국어권 대학의 경우 해당 언어 공인성적이 없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나 대학별 지원자격에 HSK 성적이 명시된 학교는 중국어 공인성적 소지하여야 함.
- 몽골대학 지원자인 경우 공인영어시험성적 제출

2. 복수학위생 지원자격

가.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생으로 신청 시점에 2학년 1학기까지 수학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 2학년 2학기까지 수학한 휴학생
나. 이수한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다. 복수학위생 지원 자격

국가	대 학 명	선발인원	학비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중국	천진외국어대학	5명 이내	제주대 납부	HSK 5급 이상, 수학기간 2년
	천진재경대학	5명 이내	"	경성대학생만 지원가능, HSK 5급 이상, 수학기간 2년

3. 자격제한

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
나. 학적 상 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타 대학 이수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학적 60조)
라. 성적 평점과 어학능력이 제주대학교 추천기준 미만인 학생

4. 제출서류

가. 교류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 대학 수강신청원(소정양식) 1부
다. 지원시점 직전학기 성적까지 나온 성적표 1부
라.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5. 선발방법

대학별 영어 공인성적순으로 선발하되(대학별 지원 자격에 해당국 언어 공인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 동순위 인원이 선발인원 초과 시 영어성적 소지자, 학업성적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필요시 면접시험을 실시함)

6. 학비 및 생활비

가. 교류수학기간 동안 등록금은 본인의 소속대학에 납부하여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함(복수학위생 포함)
나. 현지 생활비는 학생이 부담함

7. 파견 권역별 장학금 지원

: 해외지배대학 파견 교류수학생에게 권역별 파견국에 따라 파견장학금을 지급함

권역별	대학소재국가	지원금액(천원/학기)		비 고
		1학기	2학기	
동아시아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러시아(극동), 몽골, 베트남	1,000	600	수학대학 학비 면제
	필리핀(GNE 프로그램)	3,000		학비 양교납부
대양주	미국, 캐나다, 유럽, 인도, 호주	2,000	1,200	수학대학 학비 면제
	미국, 호주	5,000	1,400	학비 양교납부인 경우

※ 1년 파견자의 2학기째 파견 지원금은 첫학기의 60%(단, 미국 지배파견 교류수학생은 학비상당액) 지원

8. 학업인정

가.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당 18학점, 계절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나. 학기 당 18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되지 않음(18학점을 초과한 OCU 강의 또한 신청할 수 없다.)
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학기별로 본교에 접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 교류수학생 선발

가. 선발공고 : 2014. 3. 4.(화)
나. 신청마감 : 2014. 3. 14.(금)(국제교류본부 공문 및 서류마감일)
***모든 서류를 소속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학과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자 확정 : 2014. 3. 17.(월)

10. 문의사항

국제교류본부 ☎754-2198, e-mail : intl1@jejunu.ac.kr

사 설

지방대학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두고 수도권 이외의 대학들이 들쭉이고 있다. 2018년이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이 많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대전제이다. 지방대학의 위기인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 특성화함으로써 지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과 학과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한국의 대학, 특히 지방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제공자는 50년, 100년은 고사하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교육행정이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대학을 수도 없이 허가에 준 것은 정부가 아닌가. 효율성을 앞세워 대학을 난도질 한 것도,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기형화된 현실을 방치한 것도, 그리고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 아래 초등학생까지 무한경쟁에 내몰아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것도 정부였다.

정부와 교육부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교육정책도 마땅치 않다. 학문 발전의 기본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토론과 소통이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단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정원간의 불균형, 그리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에서만 생겨나지 않았다. 학문의 깊이와 뿌리 내림을 가능하게 하는 오랜 시간을 둔 인재양성과 연구자원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교육당국의 정책에 의해 학문의 밑둥이 잘려나간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들은 ‘경쟁’과 ‘효율’의 이름으로 자행된 ‘학문 말살’과 ‘대학 죽이기’에 공모해 왔다.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부의 ‘싸움불이기’를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의성과 비판정신을 못 본 꼴에 저당 잡힌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인집단이 아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단 계획을 모 회계법인인 이 컨설팅 해준다고 한다. 회계 법인은 학문적 깊이를 담을 수 없는 몇몇 수치로 표현된 기준에 의해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대학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을 말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허형진 총장의 역할은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욕구를 민주적으로 모아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획일적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획일적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살라기보다는 그나마 남아 있는 학문적 자율성과 비판적 정신마저도 질식시킴으로써 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스스로가 수행해야 하는 ‘개혁’에서 대학 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쉽지 않은 임무이지만 반드시 저야 할 책무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탈춤연구회, 하와이서 제주 탈춤 ‘일쑤’

이덕희 여사 초청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페스티벌’ 참가

탈춤동아리 학생 16명, 이틀간 제주 입촌 탈놀이 공연

지난 7일 열린 ‘제20회 하와이 호놀룰루 페스티벌’에 우리대학 탈춤 동아리 탈춤연구회(회장 홍장남 해양산업경영학과 4) 학생 16명이 참가했다. 이번 탈춤연구회의 행사 참가는 이덕희(하와이대학교후원재단 이사) 여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15분 가량 ‘제주 입촌군 탈춤놀이’ 공연을 펼쳤다. 이를 통해 세계인들이 하나가 된 축제 속에서 제주 전통 탈춤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렸다.

행사에 참가한 이미숙(정치외교학과 3) 학생은 “처음에는 언어 문제와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제주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제주도 대표로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는게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놀룰루 페스티벌을 통

해 우리 동아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대 학생으로는 최초로 하와이 호놀룰루 페스티벌에 참가한 탈춤연구회는 제주도 고유의 탈춤을 연구하고 각종 공연을 하는 동아리이다.

이들이 참가한 호놀룰루 페스티벌은 하와이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하와이 지역주민들 간의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목적으로 열리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호놀룰루 페스티벌은 ‘평화와 공존(Pacific Harmony)’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들간에 걸쳐 진행된 축제는 대규모 불꽃놀이를 비롯해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과 행사들이 호놀룰루 시내에서 펼쳐졌다.

한편 이덕희 여사는 2002년부터



7일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하와이 호놀룰루 페스티벌에 참가한 탈춤동아리 ‘탈춤연구회’ 학생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무라바야시 장학(Murabayashi Scholarship Beneficiaries)’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대 학생들에게 외국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학생은 하와이 토카이 대학교와 카피올라니 대학 등에서 학비와 거주비 등 연기준 8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평양 출신인 이 여사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남가주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고 30여 년간 환경계획가로 활동했다. 하와이대 아시아태평양 대학 객원연구원, 호놀룰루시 토지사용국에서 도시계획전문가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도 미국 한인사회에서 활발한 장학·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강수빈 기자

정문지킴이 돌하르방, 박물관 앞으로 이전

돌하르방 훼손 막기 위해

옛 제주성문 앞 모습 재현

제주대 정문을 지켜왔던 돌하르방이 박물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돌하르방은 개장을 앞둔 지난날 27일 옮겨졌다.

이번 돌하르방의 ‘이전’은 돌하르방 고유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민속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 돌하르방은 옛 제주성문에 있던 돌하르방을 옮겨왔던 것으로, 유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정문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화단을 넘은 차에 부딪히는 등 돌하르방의 훼손을 사전에 막고자 옮기게 됐다.

이로써 박물관 입구에 있는 돌하



원래 있던 돌하르방 두 기(왼쪽 두 기)와 정문에서 옮겨 온 돌하르방 두 기(오른쪽 두 기)가 박물관 앞에 모였다.

르방은 원래 있던 두 기와 정문에서 옮겨 온 돌하르방 두 기를 합쳐 네기가 모였다. 이는 옛 제주성문의 마주보는 모습을 재현해 돌하르방의 역사적인 가치를 더욱 높였다.

김종찬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앞으로 돌하르방이 박물관의 상징적

인 의미를 나타내어 돌하르방을 통해 박물관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돌하르방 이전은 박물관 입구 앞에 야외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한 첫 시도로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역사문화박물관 시민강좌 개강

박물관(관장 허남춘)과 제주시가 함께 마련한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가 지난 8일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제주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 마련됐다.

이 강좌는 오는 12월 6일까지 국내 교수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제주의 문화재,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도내의 문화유적지 답사 등 30개 강좌로 진행된다.

한편 역사문화박물관 시민강좌는 제주시가 2011년부터 박물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강경태 기자

WISET 장학금 전달

김수현 학생 외 5명

김수현(기계공학과 4), 김수현(전자공학과 4), 강희양(생물학과 3), 송명주(에너지공학과 3), 이정민(해양시스템공학과 2) 학생이 지난 5일 ‘2014년도 1학기 WISET 장학금’을 받았다.

WISET(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사업) 제주지역센터(센터장 도양희)에서 전달한 장학금은 올해 처음으로 WISE사업이나 WISET사업에 참여했던 여학생 중 일정 학점을 넘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이날 등록급 전액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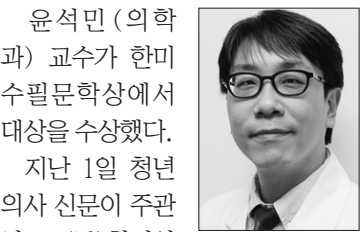
도양희(전자공학과 교수) 센터장은 “핵심 여성과학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제주대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ISET 제주지역센터 관계자는 “오는 2학기 WISET 장학금은 WISE사업이나 WISET사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 온 여대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윤석민(의학과) 교수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수상



윤석민(의학과) 교수가 한미수필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일 청년의사 신문이 주관하고 (주)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제13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에서 ‘너의 목소리’라는 글로 대상을 수상한 윤 교수는 “1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한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기록했다”며 “글에 대한 확신보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었다. 앞으로도 삶을 기록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윤 교수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받았으며 한국산문을 통해 등단하게 된다.

강수빈 기자

한승희(기획평가과) 과장

5일 서기관 승진



한승희(기획평가과) 과장이 지난 5일 교육부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 전남대로 자리를 옮겼다.

한승희 과장은 1979년 총무처 공채로 제주대에서 공직을 시작해 2006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총장 비서실장, 교육부 국가교육과 학기술자문회의 의제개발지원팀장, 산학협력과장, 홍보출판센터 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경태 기자

2014 세계 뇌주간 행사

오는 15일 생명대서 개최

사람들에게 아직도 많은 것이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뇌’에 대한 행사가 열린다.

‘2014 세계 뇌주간 행사’는 한국 뇌연구협회(회장 나홍식 고려대 교수)와 제주대 수의과학연구소(소장 김재훈), 의과학연구소(소장 김수영)가 공동 개최로 오는 15일 생명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뇌와 신경과학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뇌의 기능과 질환에 관련한 여러 주제에 대해 일반인 대상의 공개강좌도 열린다. 공개강좌는 이번 행사의 하나로 진행될 것이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여고

시정

아라중

제주대

학원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www.jnuri.net

제주를 여는 창!

jnuri

인터넷 뉴스 & TV

제보 및 문의 : 064-748-3883

FAX. 064-748-3882 E-mail. jnuri@jnuri.net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1.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모집대상 :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 모집기간 : 4월 3일 (목)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접속 후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첨부파일)을 받아 작성. 제주대신문 편집국(취업전략본부 3층)에 제출

2. 기타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동기) 1부
칼럼(자유주제) 1부

3. 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지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중앙 언론에서 활용하는 편집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제주대신문 학생기자 출신 도내의 주요 언론사 취업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현재 일본 오사카, 도쿄, 오키나와, 중국, 필리핀, 라오스, 미국, 몽골, 대만, 베트남 등 현지 취재)

4. 면접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 통보(후후 면접일 조정)

5.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신문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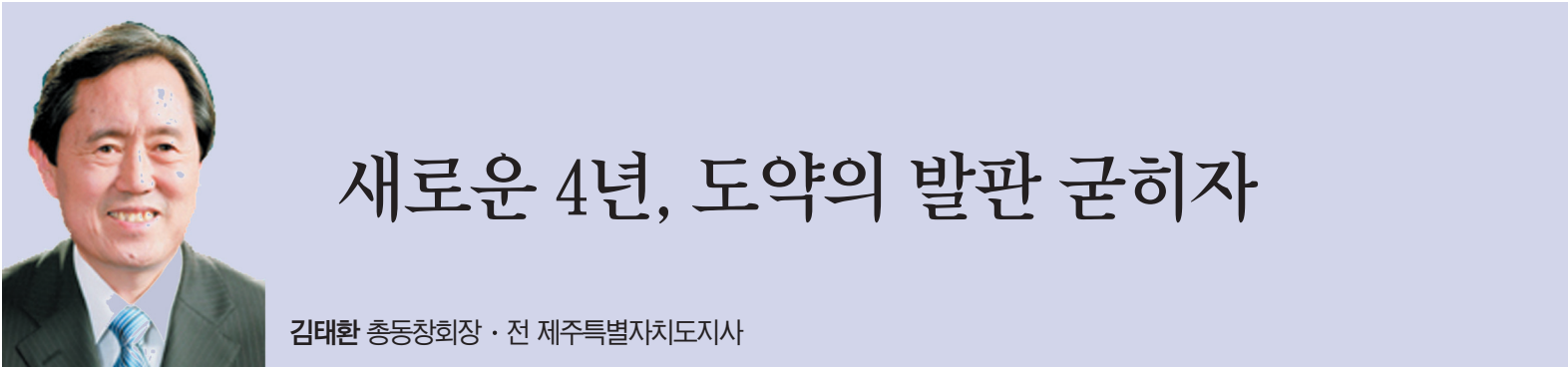
5.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 제9대 허향진 총장에게 바란다



김태한 총동창회장 ·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리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62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들과 졸업생,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허향진 총장님이 학교 경영을 맡은 지난 4년 동안은 우리 제주대학의 도약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일례로 제주대학교가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에서 거점국립대 2위를 기록한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선 호남·제주권 1위, 전국 2위라는 성과를 일궈내 중앙언론으로부터 '지방편견을 깨뜨린 값진 성과'라는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에서 4개 대학만 선정된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으로 뽑혀 해외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도 했습니다. 그간 우리대학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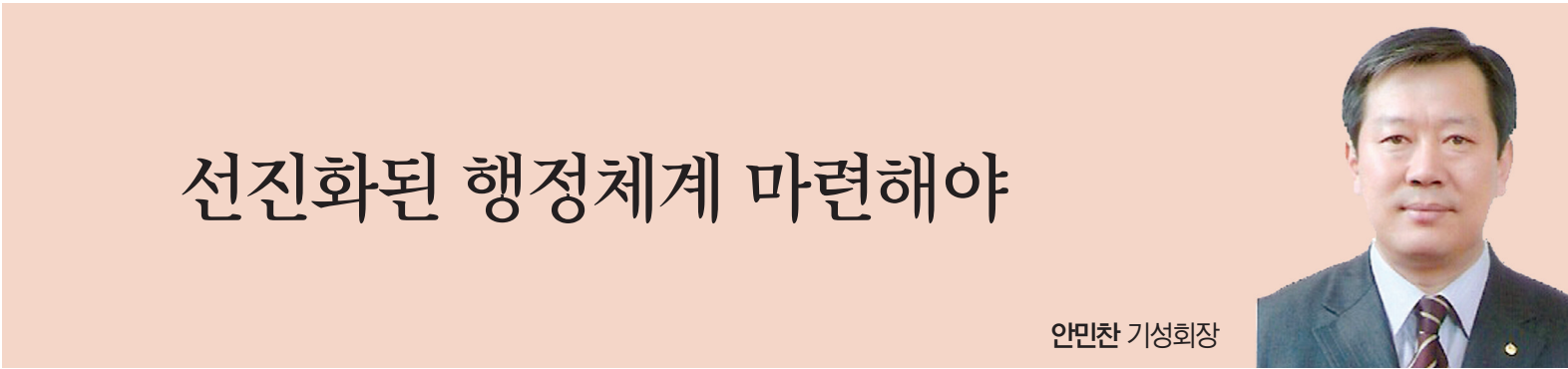
27개국 179개 대학 25개 기관과 학술교류 또는 학생교류 협정을 맺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탄탄히 구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 외국대학에 파견된 교환학생 수는 3백여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도 6백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주대는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창회장으로서 가슴이 뻘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허향진 총장님의 리더십과 이를 도와준 교수님, 교직원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허향진 총장님이 다시 한 번 총장직을 맡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공로를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총장님께서 다시 대학경영을 맡게 된 것으로 4년은 지난 4년 못지않게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문회에서라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민찬 기성회장

선진화된 행정체제 마련해야

제주대학교 9대 총장이 지난 3월 7일 취임하였습니다.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 제주대학교에 자녀를 맡겨둔 기성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9대 총장은 마지막 직선제 총장이면서 첫 간선제 총장으로 2회 연속 사령탑을 맡았기에 그 기대가 더욱 큼니다.

지난 4년의 제주대학교는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수의과대학 건물 신축, 간호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신설, 제3도서관 확보 등 제주대학교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로 뛰는 총장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학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학문의 전당이 아닌 취업의 메카로 바뀌었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립대의 현실이기에 몰아치는 구조조정의 환파를 이겨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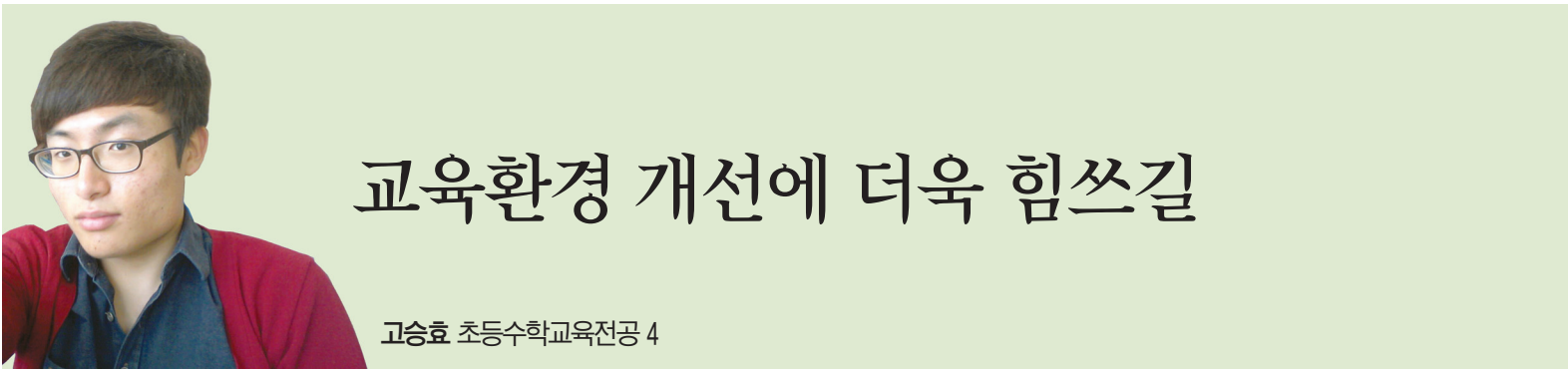
사회·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지방 균형발전이 지방대의 균형발전으로, 이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연결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즉 전국대학의 중심에 서는 대학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역 경제발전의 선두주자이며 그 밑거름이 되는 인재양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 그것이 허 총장에게 주어진 4년간의 숙제입니다.

게다가, 총장선출때마다 붙여져 나오는 대학 내

갈등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임기동안 다음 총장 선거와 관련된 갈등의 씨앗들을 잘 정리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갈등의 씨앗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숙한 행정체제라도 봅니다. 누구나 만들어진 제도 내에서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선진화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허 총장의 몫일 것입니다.

세계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제주도 내에 위치한 국립 제주대학교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은 물론 적국 대학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임기 동안 소신껏 대학발전의 뜻을 펼쳐 경험 있는 총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바랍니다.



고승호 초등수학교육전공 4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길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2011학년도에 제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4년째 되는 학교생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대학에 다니면서 훌륭한 강의는 물론, 예비 교사로서의 준비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 동기들간의 소중한 추억도 가득 쌓였습니다.

교육대학 진학에 만족스러움을 느낀 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렴한 등록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비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테마여행, 어학연수, 사리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해 큰 도움이 됐습

니다. 또한 아라캠퍼스와의 교류의 폭도 점점 넓어지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내에서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예로 교육대학 기숙사 학생들의 식사 개선은 제가 입학한 2011년부터 항상 이슈가 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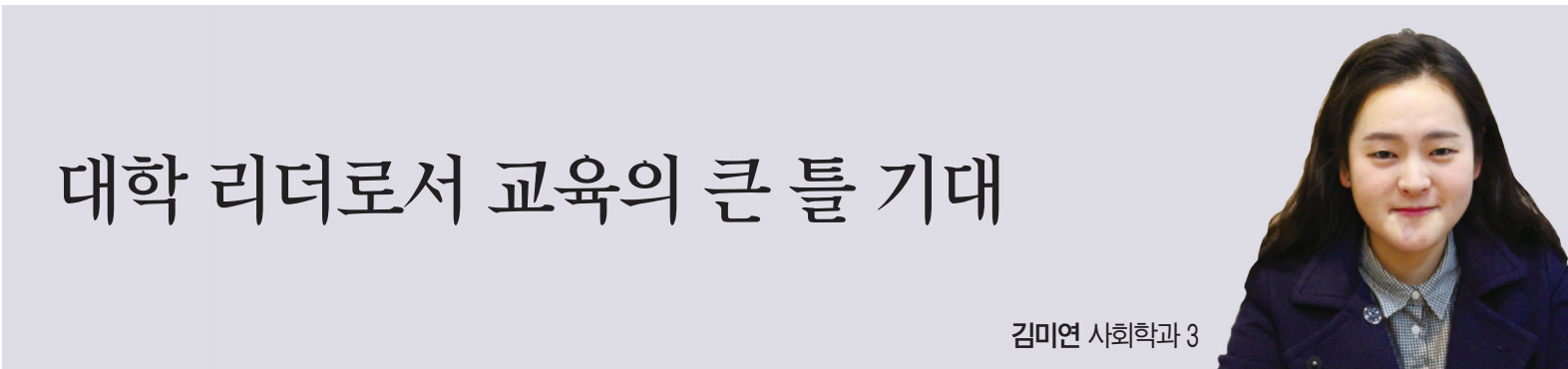
또한 학내 규정이 학생들과의 협의 과정 없이 변경되어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체육관을 쓰는 동아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학 기간에 맞춰 체육관을 활용

할 시간을 정했는데 급작스럽게 일요일에 체육관을 쓰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동아리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위 사례를 제외하고도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학교측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사라캠퍼스는 하나의 작은 단과 대학이지만, 사라캠퍼스를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대학 학생들로서 앞으로 훌륭한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환경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라캠퍼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김미연 사회학과 3

대학 리더로서 교육의 큰 틀 기대

새학기가 되어 파릇파릇한 신입생이 들어오고 그 분위기에 맞게 일어있던 제주대학교에도 발랄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3월 개강이 지난 이 시점에 총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3학년 학생으로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경험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학생들은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어떠한 문화적 체험이나 외부적 체험들을 경험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좋은 기회를 적극 활

용하는 학생은 소수의 학생들 뿐이며, 그 참여율 또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며 학생들의 참여는 어떻게 유인해야 할까요.

두번째로는 학생들의 혼란입니다. 총장님께 서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학점, 영어, 대외활동, 봉사까지 수많은 과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제들은 학생들의 떼어놓을 수 없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지치다고 놓아버릴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잠깐 놓아버리는 순간 다른 학생들은 멀리 앞서가 버립니다.

이토록 갈등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대중매체나

학생들의 워너비들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 같은 길만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며 학생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이는 비단 제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걱정과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 학교의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하는 학교의 리더로서 틀을 잡고, 방향을 지도해주는 것. 그 방향을 따르는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제주대를 명문으로 만드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명문, 세계 중심’으로

제9대 허향진 총장 취임사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전임 총장님과 국내외의 귀빈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동료 교수와 직원, 학생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가슴 벅찬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저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대학을 둘러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부름으로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60여 년의 전통과 학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자랑스러운 명문으로 제주대학교를 다시 한 번 도약시켜야 한다는 신성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글로벌 시대의 뉴 리더, 혁신하는 명품 대학’을 위해 열정을 바쳤던 제8대 총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주대학교의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헌신하라는 막중한 소임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자신감을 갖고서 당당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냉정하게 직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도 않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확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신명을 바쳐 제9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엄숙히 수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돌이켜보면 4개 학과의 도입 초급대학으로 뜻을 올린 우리 제주대학교는 60여 성상을 거치는 동안 참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12개 단과대학과 9개 대학원에 재학생이 1만 2,000명이 넘으며, 800여명의 교원과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재정규모 2,314억원, 국책사업 400억원, 발전기금 약 1,000억원, 대학평가 전 분야 인종, 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 LINC 사업 최상위권 등이 현재 우리대학교의 지표입니다.

과감한 도전정신과 치밀한 실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성화 정책을 내세운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따른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확고한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으로 이 절박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할 4대 발전목표는 글로벌 교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 대학, 경쟁력 있는 지식 창출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 지구촌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 열린 대학, 그리고 제주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지역발전 선도대학입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소통과 참여, 분산과 자율, 원칙과 신뢰,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JNU 3대 프로젝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JNU 프로젝트란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JNU’의 비전을 실천함에 있어 우리 대학(Jeju National University)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도약(Jump), 혁신(New), 통합(Unity)에 대한 우리대학 가족 여러분들의 염원, 열정, 의지를 담은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전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으로써 대학경영에 대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취입률은 현재 52.8%에서 60%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립대 최상위권에 도달할 것이며, 1인당 장학금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증액하여 학생들이 면학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00여 명인 외국인 학생은 1,000명 이상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대학의 위상을 확보할 것이며, 970억원의 발전기금은 1,5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탄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50억원인 학술연구비 및 국책사업비는 750억원을 확보토록 할 것이고, 교수님들의 논문 편수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술진흥연구비를 대폭 증액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과 연계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것이며, 약 200억원 규모의 교직원 처우 개선 발전기금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4년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발전 목표들이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제주대학교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진리·정의·창조의 교훈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진정한 상아탑의 면모를 만방에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망은 총장이나 주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뜨거운 애교심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합심하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 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꿈을 머리카락 입으로만 꾀다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 몸으로 자기 뒤통의 고통을 받아 나가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모든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대학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가 앞장 서 헌신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대학 구성원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발전의 향방은 교육과 연구라는 여러분의 숭고한 본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역사회와 인류에 봉사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감동을 주는 교육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문화 창달과 첨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에 계속 매진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서 본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진애하는 직원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열악한 여건에서도 대학 사랑의 일념으로 헌신해 오셨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의 창의적 업무수행 능력이 혁신적으로 강화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국내의 교육환경에서 우리 대학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시대의 명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풍부한 교양의 토대 위에서 저마다의 전공 역량을 확실히 갖추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이요, 여러분이 졸업 후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상의 취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제주대학교를 통해 실현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과 학부모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제주대학교로 성장하기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앞으로도 힘껏 도와주십시오.

우리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모델 지역인 홍콩특별행정구에는 홍콩대학,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동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이제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을 향한 대장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순탄한 여정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라는 난관이 벌써 우리 앞에 대가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가 땀물 땀처져 철저히 준비하여 맞선다면, 커다란 위기를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서 용기 있게 도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됨으로써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제주대학교의 자력을 만천하에 보여줍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세계에서 가장 멋들어진 대학을 만드는 꿈을 함께 꾸어 봅시다. 대학가족 모두가 자랑스런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으뜸의 대학공동체를 만들어 냅시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제주대학교의 찬란한 영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자랑스러운 미래로 힘차게 도전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7일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 허 향 진